

20번째 별의 주인공은...KB금융 스타챔피언십 개막

내일부터 20번째 대회 시작...지난해 신인왕 유현조 2연패 달성 주목
2주 연속 우승 도전 신다인·메이저 2승 도전 홍정민·전인지 등 출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이 4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6722야드)에서 열린다. 지난해 총상금 12억원에서 3억원 늘린 올해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5월 KLPGA 챔피언십, 6월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메이저 대회다.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는 25일 개막하는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이다. 2006년 창설된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올해 20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챔피언은 신인이던 유현조였다. 작년 신인왕 유현조는 올해 아직 우승은 없지만 준우승 3회, 3위 2회 등 줄곧 우승권을 맴돌며 투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제14회 KG 레이디스오픈에서도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유현조는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이 라 긴장이 많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샷감이나 컨디션이 좋아 2연패를 꼭 해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KG 레이디스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신다인은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신다인 역시 “컨디션은 정말 좋고, 샷감도 많이 올라와 기대된다”며 “메이저 대회인 만큼 코스가 어렵게 세팅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티샷과 두 번째 샷 공략에 집중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 홍정민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시즌 상금 9억9642만원을 쌓은 홍정민은 이번 대회로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할 태세다. 또 시즌 첫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해 ‘메이저 2승’도 노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전인지가 2023년 이 대회 이후 2년 만에 KLPGA 투어 대회에 나온다. KB금융그룹 골프단 소속인 전인지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 대회 패권 탈환에 나선다. 역시 KB금융그룹 후원을 받는 방신실도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8월 말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추천 선수로 나와 우승한 김민솔은 1부 투어 선수 자격을 얻고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다연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K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4개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운다. 이다연은 2019년 한국여자오픈, 2021년 한화 클래식, 2023년 KL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메이저 3승’을 기록 중이다. 5년 홀 ‘KB 스타 존’에 선수들의 샷이 떨어지면 회당 200만원, 최대 1억원을 적립해 ‘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을 조성하고 17년 홀 ‘골드라이프 존’에 공이 안착하면 한 번에 여주이천쌀 20kg, 최대 3000kg을 모아 지역 자립 준비 청년에게 전달한다. /연합뉴스



2024년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자 유현조. <KLPGA 제공>

‘영암 강자’ 김찬우, 영암서 3번째 우승 도전

내일 KPGA 파운더스컵 출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김찬우는 지금까지 거둔 2차례 우승을 모두 전남 영암군에서 따냈다. 첫 우승은 2023년 전남 영암군 코스모스 링스에서 열린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올렸고, 두 번째 우승도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코스에서 치러진 KPGA 클래식에서 거뒀다. 두 골프장은 영암군의 개펄을 매워 조성한 개발 단지 안에 나란히 있다. 고향이 충남 천안인 김찬우가 ‘영암 사나이’로 불리는 이유다. 김찬우는 오는 4일부터 나흘 동안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리는

KPGA 파운더스컵(총상금 7억원)에 출전한다. 이번에도 또 우승하면 ‘영암 사나이’의 위상은 더 공고해진다. 자신감도 넘친다. 김찬우는 “우승했던 코스에서 열리는 대회라 특별하게 다가온다. 올해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서는 매 홀 집중해 끝까지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 영암에서 또 한 번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에서 통산 13승을 달성한 박상현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박상현은 “우승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루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했다. 이번 시즌 혼자 두 번 우승해 상금과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옥태훈은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에서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즌 3승을 목표로 출사표를 냈다. 작년 이 대회 챔피언 고군택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경북 예천군 한맥 컨트리클럽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고군택은 “휴식기 동안 스윙 궤도를 교정했다. 상반기를 치르면서 티샷에서 종종 실수가 나와 페어웨이를 놓친 적이 많았다. 일본투어에서 경기하면서 페어웨이 적응률이 많이 올라왔다. 효과가 있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올해 우승을 신고한 이태훈, 김백준, 문도엽, 배용준, 김홍택 등은 시즌 2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전남체육중·고 레슬링부 전국대회 메달 잔치

금 4·은 3·동 12개 등 메달 수확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전국 학생 레슬링 최강자의 위용을 과시했다. 전남체육중·고는 최근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53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학생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2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현(55kg)과 2학년 박태윤(97kg)이 그레코로만형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자유형에서는 김예찬(79kg)과 김동준(86kg)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는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전남체육중·고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집중 훈련에 돌입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6연승 도전...한중일 ‘바둑 삼국지’ 농심배 막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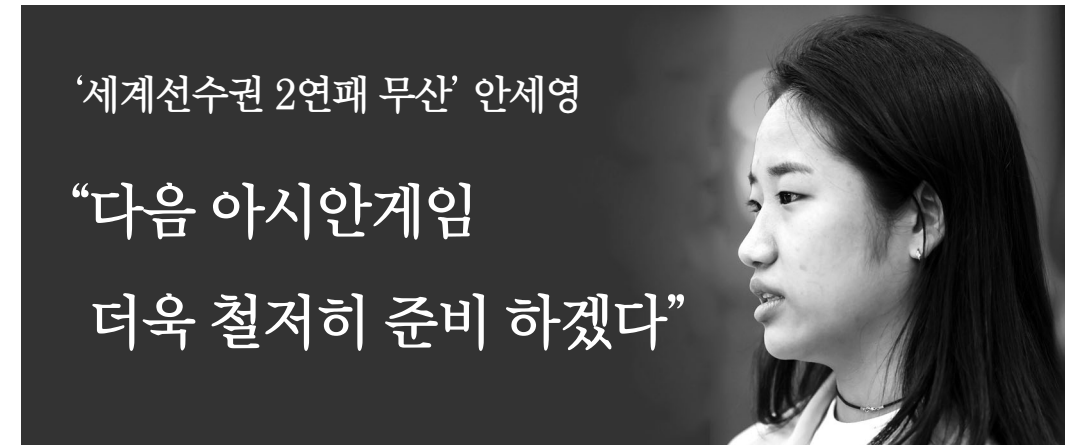
한중일 세 나라가 반상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바둑 삼국지’ 농심배가 27번째 막을 올린다. 제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은 2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가진 뒤 3일부터 6일까지 1차전(1~4국)을 치른다. 2차전(5~9국)은 11월 21~25일 부산에서 열리고, 최종 우승국이 결정되는 3차전(10~14국)은 내년 2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펼쳐진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부동의 랭킹 1위 신진서(25) 9단을 비롯해 박정환(32·2위), 강동윤(36·3위), 이지현(32·5위), 안성준(33·6위)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최근 세계대회 단골 멤버였던 신민준(4위)과 변상일(8위)이 빠지긴 했지만, 한국은 이번 농심배에서 역대 최다인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철벽 수문장’ 신진서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22회 대회부터 26회까지 5년 연속 우승했다. 한국의 최종 주자인 신진서는 22회 대회 때 막판 5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견인했고 23회 4연승, 24회 1승, 25회에서는 조유의 끝내기 6연승을 거두며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신진서는 26회 대회에서도 막판 2연승으로 한국의 5연패를 완성했다. 명실상부 세계 최강자인 신진서가 이번 대회에서도 뒷문을 지키는 한국은 역대 최다인 6년 우승



신진서(왼쪽부터)·박정환·강동윤 안성준·이지현 9단이 제27회 농심신라면배에서 역대 최다인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기원 제공>

에 도전한다. 농심배에서 6연패는 이창호 9단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1~6회 대회에서 달성했다. 또한 농심배에서 2패 뒤 18연승을 달리는 신진서는 통산 다승 순위에서 이창호(19승)를 넘어 중국 판팅위 9단이 보유한 최다승(21승) 기록을 갈아치울지도 관심거리다. 한국에 맞서는 중국은 덩하오·왕성하오·양카이원·탄샤오·리친징 9단 등 최강 멤버를 구성해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일본은 제10회 응씨배 우승자인 이치리키 료 9단을 필두로 이마바 유타·시바노 도라마루·시자위

안 9단과 후쿠오카 고타로 7단이 출전한다. 칭다오에서는 ‘시니어 바둑 삼국지’인 제3회 농심백산수배도 함께 열린다. 패권 탈환을 노리는 한국은 랭킹 시드를 받은 유창혁 9단,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김종수·김영환 9단, 와일드카드로 초청된 조훈현 9단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중국은 류샤오광·차오다위안·루이나이웨이·위빈 9단, 일본은 고바야시 고이치·야마시로 히로시·요다 노리모토·나카노 히로나리 9단이 출전한다. 농심신라면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고 농심백산수배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연합뉴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라이벌 천위페이(중국)에게 패해 대회 2연패 꿈이 좌절된 안세영(삼성생명)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대회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안세영은 대회를 마치고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말 그대로 아쉬운 대회였다”며 “많은 분이 기대해주셨고, 저도 기대가 많았던 대회인데,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울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에서 우승을 거둔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천적’ 천위페이(4위)에게 발목을 잡혀 최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그동안 각종 국제 대회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온 안세영의 실력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을 만하다. 안세영은 “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실수하더라도 제가 준비한 것을 시도했다면 차라리 후회는 없었을 텐데,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털어놨다. 특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타이틀을 지켜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안세영은 대회 64강부터 8강까지 상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모두 2-0으로 완승했지만, 4강에서는 초반부터 5연승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고, 2게임에서도 천위페이의 노련한 공격에 밀려 쉽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안세영은 “하루하루 경기를 하는 게 재밌어야 하는데, 너무 결과에만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앞섰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경험 역시 (경기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다음 대회를 준비할 생각”이라며 “너무 공격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가 잘했던 것들을 좀 많이 잃었던 것 같다. 제가 잘하는 거는 계속 가져가되, 공격 스타일을 조금씩 더 보완하다 보면 충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안세영은 이제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바라본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은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전남수채화협회 : 빛이 흐른다

일시 : 2025-08-14(목) ~ 2025-09-1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리제 광주시립교향악단 39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

일시 : 2025-09-1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